

무료법률 상담소 (051)466-1680
자비의 전화 (051)461-0009

부산불교 자비원
전화:(051)461-0009 FAX:(051)441-2719

현대 불교 부산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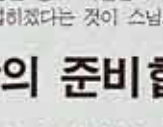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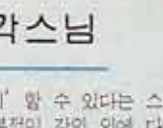
부산불교 신행 현주소 18면

부산불교를 이끈다 19면

범어사 승가대졸신 종진스님

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이력을 마친 스님들 가운데는 오늘날 불교계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는 종진들이 많다.

66년 첫 졸업생 가운데서도 인명부의 1번으로 기록된 스님은 정유스님이다. 정유스님은 용주사 강원을 거쳐 청암사에서 중강 소임을 맡아 오면서 인각경과 화엄경을 공부했다. 그후 범어사 강백 삼성스님, 해홍스님, 황지원스님, 범어스님들과 범어사에서 강원을 개설하였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은 첫 학인이면서 강원의 문을 연 주인공들인 셈이다. 이중 지원, 범어스님은 입적했다. 삼성스님은 현재 범어사에 주석하고 있으며 해홍스님은 대한불교신부



종하·정휴 중원스님등 폭넓은 활동

사의 발원인이다. 종하스님(불교방송 이사장)도 이 당시 범어사에서 이력을 마쳤다. 도서출판 토방을 운영하고 있는 윤사 석성우스님도 이곳 출신. 제주 관음사 주지를 맡고 있는 중원스님, 청계사 주지이며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인 지명스님, 용주사 주지 정현스님도 이곳에서 공부했다. 중앙승가대 기획실장 금정스님은 범어사에서 중강을 지내기도 했으며 해인사 강주인 수진스님도 이곳에서 공부했다. 강남 불문사 주지 성문스님과 부산 인민회에서 활동했던 범산스님도 범어사 승가대가 배출한 이력종장의 반열에서 빠질 수 없는 스님들이다.

“계·정·혜 삼학 닦는다”...쉽없는 정진

초여름의 신록과 고찰의 풍경이 캔버스에 그려가며 여념이 없는 종학들이 범어사 경내 여기저기에 앉아 있었다. 무리지어 다니는 관광객들의 경이로운 시선과 학생들의 진지한 그림 그리기 장면 자체가 한쪽의 풍경과 같다.

나른한 오후, 범어사 원웅정사 강당에서는 젊은 스님들이 컴퓨터를 앞에

고 있다는 얘기가. 전통 강원의 교수법을 유지하면서 현대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범어사 승가대학의 모습에서 부산 지역 신명을 이끄는 범어사의 위상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범어사 승가대학은 1966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물론 그 이전의 강원은 매우 이름난

○범어사 승가대학. 초여름의 신록속에서 스님들의 면학열기가 뜨겁다. 이 일출에서 현재 16명의 학인이 내·외전을 공부하고 있다.



내일의 아라한들 ④

젊은 학승 탐방 **범어사 승가대**

놓고 새로운 배움의 세계를 탐닉하고 있었다. 범어사 승가대학(학장 정관스님)은 최근 5대의 컴퓨터를 들여 놓았다.

66년 첫 졸업생 배출
16명의 학인들이 간결만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승가가 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이래 컴퓨터 다루기를 배우는 모습은 사뭇 진지했다. 중강을 맡고있는 용학스님이 컴퓨터에 능해서 따로 강사를 쓸 필요가 없고 시간 나는데로 특강을 하

간경의 터전이었다. 고준한 이력의 대덕스님도 매우 많이 배출했던 범어사 강원이 지금의 체제로 자리잡은 후 첫 졸업생이 1966년에 배출했던 것이다.

이후 최근까지 범어사 승가대학은 2백48명의 이력종장들을 배출했으며 현재는 16명의 학인들이 간경과 외전공부에 여념이 없다. 다른 승가대학과

마찬가지로 4개의 반으로 구성됐으며 치문반과 사집반은 강주 대각스님과 중강 용학스님의 지도로 이력을 쌓고 있다. 사교·대교반은 전통 논공법으로 부처님의 법바다를 탐구하고 있다. 강주스님의 자세한 점검 아래 펼쳐지는 논공식 수업은 언제나 진지하다.

중국불교사 특강 계획
기본적인 내전 외에도 범어사 승가대학은 영어와 일본어, 컴퓨터를 배우고 있으며 앞으로는 특강 형식으로 <선문철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또 무비스님의 경전강의와 흥선스님의 중국불교사도 특강으로 꾸려볼 계획이란다. 강주 대각스님의 생각이다.

다른 승가대학과는 달리 범어사에서는 영어를 좋은 조건 속에서 배우고 있다.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직접 강의하기 때문이다. 영어강사 박 존재는 부산에서 영어학인 강사를 하

다가 불교에 심취돼 아예 산내 암자인 안양암에서 살고 있는 초발심자이다. 일본어는 흥선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맡고 있다. 작년 강주 대각스님이 범어사에 오면서 시작된 외전 과목은 학인 스님들의 열의로 나날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범어사 승가대학은 사종의 문제로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력의 맥은 끊이지 않고 있다. 87년 범어사 불교전문강원이 범어사 승가대학으로 개칭된 이후 말자는 않지만 꾸준히 학인들을 모집, 치문에서 대교까지 오롯한 이력을 마치고 매년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불조(佛祖)의 원력을 계승한다 △협동단결로 영동한다 △자비와 봉사로 주는 자가 된다 △인내와 끈기로 관철한다. 이것은 범어사 승가대학의 학훈이다. 수행 이력에 대한 다부진 결의와 시대를 이끄는 승가상 정립에 대한 원력이 그대로 보여지는 학훈이다. 범어사 승가대학에는 대강백도 많이 주석했다. 고봉(高峰)스님, 도형스님, 운성스님, 지효스님 그리고 철보사 조실 석주스님, 백운스님, 무비스님 등 단대의 강백들이 이곳에서 후학의 간경을 이끌어 스스로의 학해(學海)를 드넓혔던 스님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에서 캐산공부를 하고 있는 정방스님 등 외국으로 나가 유학을 한 스님도 많다. 범어사 승가대의 자랑이기도 하다.

대단한 학풍을 자랑했던 범어사 승가대학은 최근 활어 학인의 수가 줄어들고 사종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맞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랫반 뒷안 내·외전 탐구에 여념이 없고 중강·강주소임을 맡은 스님들의 진지한 강의 준비에서 영남 제일의 이력종장 배출로서와 희망은 밝다.

임연태 기자

인력부 강주 대각스님

“시대정신을 이끄는 승가... “PC로 강의 준비합니다”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스님... 시대정신 이끄는 승가역할 찾기 중시

“새로 시작한 컴퓨터 교육... “PC로 강의 준비합니다”

“새로 시작한 컴퓨터 교육... “PC로 강의 준비합니다”

“새로 시작한 컴퓨터 교육... “PC로 강의 준비합니다”

“새로 시작한 컴퓨터 교육... “PC로 강의 준비합니다”

“새로 시작한 컴퓨터 교육... “PC로 강의 준비합니다”

“새로 시작한 컴퓨터 교육... “PC로 강의 준비합니다”

“새로 시작한 컴퓨터 교육... “PC로 강의 준비합니다”

“새로 시작한 컴퓨터 교육... “PC로 강의 준비합니다”

“새로 시작한 컴퓨터 교육... “PC로 강의 준비합니다”

“새로 시작한 컴퓨터 교육... “PC로 강의 준비합니다”

“새로 시작한 컴퓨터 교육... “PC로 강의 준비합니다”

“새로 시작한 컴퓨터 교육... “PC로 강의 준비합니다”

“새로 시작한 컴퓨터 교육... “PC로 강의 준비합니다”

“새로 시작한 컴퓨터 교육... “PC로 강의 준비합니다”

“새로 시작한 컴퓨터 교육... “PC로 강의 준비합니다”

“새로 시작한 컴퓨터 교육... “PC로 강의 준비합니다”

무하주 주택건설 부문 1위
모델하우스 실재주택 비교부문 1위!
신도시 종합주거 만족도 평가 3위!
(한국주택신문 조사)

우등 경남 마리나아파트 분양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는 왔다!

3가지 빅 서비스!

1. 혁신 설치
2. 대폭 인대
3. 남입 유예

24평형은 방이 3개, 내 서재를 따로 마련했어요.

정말 넓고 깨끗하네~ 무공해 자연까지 함께 분양 받았어요!

마리나 타운의 마지막 최상의 주거지! 자연을 함께 분양받는다.

부산의 새로운 교통, 문화, 상업, 휴양 중심지로 떠오르는 수영만. 그중에서도 핵심요지에 들어서는 경남 마리나아파트. 앞에는 바다, 옆에는 문화공간, 뒤에는 온천. 그 최고의 생활낙원으로 귀하를 초대합니다.

주변환경
해안인접(해운대 해수욕장, 요트경기장), 레저, 문화시설 밀집, 강남이 선택한 마리나 타운의 마지막 최상의 주거지. 신 시가지 17개 학교의 명문학교 부설.

교통
필인대로 수영강변도로 개설, 해안 순환도로와 도시외곽도로 지하철 2호선 인접, 서울, 최근 편의.

시설
넓은 주차공간, 세대별 지하수가 설치, 단차내 대형싱크, 실가들은 주거단지.

총 624세대 대단지

- 24평형 284세대
- 33평형 250세대
- 50평형 60세대
- 61평형 30세대

분양문의 (051) 746-8734~5

경남기업